

부록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2학년도 시준6 제6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개인 정보 처리와 얼굴 식별화 기술

지문 평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처리의 원칙과, 이와 관련된 얼굴 식별화 기술을 연결한 통합 지문이다. 지문 간의 연관성은 느슨한 편이니 별개의 지문이라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다. 두 지문 모두 유형에 따라 개념들을 구분해 나열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특성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독해해 나가자.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사회 - 법학 - 개인정보 보호법

빅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 정보, 직접 식별 정보, 간접 식별 정보, 가명 정보, 추가 정보, 개인 정보 처리, 민감 정보

(나) 기술 - 정보공학 - 비식별화

얼굴 탐지 기술, 얼굴 식별화 기술, 안전성, 유용성, 이미지 필터링, 화소, 픽셀레이트 필터, 이미지 암호화, 픽셀 위치 기반 암호화, 복호화 키, 얼굴 합성, k-익명성

(가)론단 1 개인 정보의 유형

- 1) **빅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하며, 대개 다량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 우리가 웹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이름, 아이디, 프로필 사진 등의 개인 정보들도 '빅 데이터'를 이루는 방대한 데이터의 일부다.
- 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직접 식별 정보, 간접 식별 정보, 그리고 가명 정보로 구분된다.
 - ▶ 당연히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모든 개인 정보는 셋 중 하나라는 얘기가.
- 3) **직접 식별 정보**는 이름이나 주민 등록 번호, 영상에서의 얼굴 정보처럼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
 - ▶ 첫 번째 유형인 '직접 식별 정보'는 말 그대로 특정한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정보다. 딱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 주는 만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4) **간접 식별 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 ▶ 두 번째 유형인 '간접 식별 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으나 [→ 그랬다면 '직접 식별 정보'가 됐을 거다.]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나이, 주소, 출신 학교 등의 정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 5) 그리고 **가명 정보**는 정보들에서 식별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가명 처리를 함으로써 추가 정보의 사용이나 결합 등의 작업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다. 여기서 **추가 정보**란 가명 정보를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말한다.
 - ▶ 세 번째 유형인 '가명 정보'는 앞서 소개한 직접 식별 정보, 혹은 간접 식별 정보에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가리킨다. 모자이크 처리한 얼굴 정보나, 숫자를 기호로 바꾼 주민 등록 번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추가 정보** [→ 가명 처리의 규칙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를 통한 복원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다.
 - ▶ 여기까지, 각 정보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직접 식별 정보	이름, 주민 등록 번호, 얼굴 정보 등 개인을 직접 식별 가능
간접 식별 정보	나이, 주소, 출신 학교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 식별 가능
가명 정보	가명 처리한 식별 정보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 식별 불가능

(가)론단 2 개인 정보 처리의 허용 범위

- 1) 이러한 개인 정보를 수집, 생성 또는 이용하는 것을 **개인 정보 처리**라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 등에 한해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 이용할 수 있다.
 - ▶ 개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나왔다. 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라도 수집, 생성, 이용이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 2) 다만 2020년에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면서도, ...
 - ▶ 어떤 점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봐야겠다.
- 3) 학문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에서의 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체적 내용이다. 동의가 없더라도 가명 정보 처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개인 정보의 이용 범위를 넓혀 준 셈이다.
 - ❗ **주목** 단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처리 가능한 정보는 어디까지나 가명 정보로 국한된다. 달리 말하면 직접 식별 정보나 간접 식별 정보는 먼저 가명 처리를 거쳐야만 [→ 가명 정보가 되어야만] 별도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 ▶ 또한 모든 유형의 목적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법에서 정한 목적하에서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가)론단 3 민감 정보 처리의 금지와 예외

- 1) 하지만 가명 정보라 하더라도 [→ 심지어 가명 처리를 거쳐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인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 ▶ '민감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으니 쟁겨 두자.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매우 밀접해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를 금지하는 거다.
 - ▶ 이때 헷갈리지 말자. 가명 정보라 하더라도 민감 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 가명 정보만 민감 정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직접 식별 정보나 간접 식별 정보도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민감 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 2) 다만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았거나 혹은 법령에서 민감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안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다.

➡ 그렇겠다. 정보 주체가 유출 위험을 감안하고도 동의하는 경우, 혹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라면 민감 정보라 하더라도 처리가 허용된다는 거다.

3)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 직접 식별 정보]이나 얼굴을 가명 처리한 영상[→ 가명 정보]은 그 자체로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상에 특정 장소나 행위와 같은 사생활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민감 정보로 간주될 수 있다.

➡ 얼굴이 드러나는 영상은 직접 식별 정보, 얼굴을 가명 처리한 영상은 가명 정보에 해당한다. 단 이를 통해 신원을 식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건강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이는 그 자체로는 민감 정보로 분류되지 않는다.

➡ 다만 해당 인물이 특정 종교의 교당에 있는 영상, 혹은 신장 투석 치료를 받는 영상의 경우라면 영상을 통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문단 1 얼굴 익명화 기술의 필요성

1)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등으로 누구나 쉽게 영상을 생성할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취합되는 빅 데이터에도 다량의 영상 데이터가 포함된다.

➡ 그렇겠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SNS에 올리는 모든 영상이 이러한 영상 데이터에 해당한다.

2) 영상 데이터에는 얼굴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빅 데이터가 공유될 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 (가)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나)에서는 영상 데이터에 등장하는 얼굴 정보의 보호가 화두가 되겠다.

3) 그래서 빅 데이터의 관리자는 개인 정보 보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얼굴 탐지 기술’로 영상에서 얼굴이 포함된 처리 영역을 찾는 후, ……

➡ 영상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를 보호하려면 먼저 어떤 정보가 얼굴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얼굴 탐지 기술’이다.

4) ……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하는 방법인 ‘얼굴 익명화 기술’로 처리 영역을 변환한 후 저장 내지 이용[→ 개인 정보 처리]해야 한다.

➡ 순서에 주목하자. ‘얼굴 탐지 기술 → 얼굴 익명화 기술’이다. 그다음에야 개인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 이때 얼굴 익명화 기술은 일종의 가명 처리 기술로 이해하면 되겠다[(가)의 문단1-5]. 이렇게 생성된 가명 정보는 민감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가)의 문단2-3].

(나)문단 2 얼굴 익명화 기술의 평가 기준

1) 얼굴 익명화 기술은 평가 기준의 유형인 안전성과 유용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 얼굴 익명화 기술을 평가하는 두 가지 기준이다. 두 가지 유형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2) 여기서 ‘안전성’이란 익명화 작업 후에 이를 복구하기 힘든 정도를 말하며, ……

➡ ‘안전성’이 높으면 원래의 얼굴로[→ 직접 식별 정보] 복구하기가 어려워진다. 한마디로 그만큼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안전성은 높을수록 좋다.

3) …… ‘유용성’이란 익명화 작업 후의 영상이 손상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그대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유용성’이 높으면 익명화를 거친 영상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원래의 얼굴을 가린 티가 별로 안 난다. 따라서 정보 이용 측면에서는 유용성 역시 높을수록 좋다.

4) 얼굴 익명화 기술은 대체로 안전성을 높이면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예컨대 복구를 막기 위해 스마일 스티커로 영상 속의 얼굴 전체를 가려 버렸다고 치자. 이 경우 영상은 영 자연스럽지 못해서 유용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자연스러움을 위해 모든 얼굴 정보에 점을 하나씩 새겨 넣는다면 유용성은 높지만 안전성이 떨어진다.

(나)문단 3 이미지 필터링과 이미지 암호화

1) 얼굴 익명화 기술 중에는 [얼굴이 포함된] 처리 영역에 필터를 적용하는 ‘이미지 필터링’이 있다.

① 맥락 짚기 얼굴 익명화 기술의 구체적인 유형들이 소개되고 있다.
➡ 먼저 ‘이미지 필터링’은 ‘얼굴 탐지 기술’로 발견한 처리 영역에 필터를 적용한다.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변조 방법을 떠올리면 되겠다.

2) 영상에는 매우 작은 점인 ‘화소’들이 배열되어 있고, 흑백인 경우 화소마다 가장 어두운 0부터 255까지의 밝기값 중 하나가 부여된다.

➡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에 대한 설명이다. 밝기값이 0이면 가장 어두운 검정색, 255이면 가장 밝은 흰색이 된다. 기술 지문에서 자주 보게 될 개념이니 상식으로도 챙겨 두자.

3) 여러 필터 중 ‘픽셀레이트 필터’는 가로 4개, 세로 4개로 배열된 16개의 화소들마다 해당 화소들의 밝기값을 모두 평균한 값을 공히 그 [16개 모두의] 화소들의 밝기값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이 필터를 적용하면 화소의 개수가 그대로임에도 해상도가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나서 누구의 얼굴인지 알아보기 힘들어진다.

① 주목 이때 해상도가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자. 즉 이 필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화소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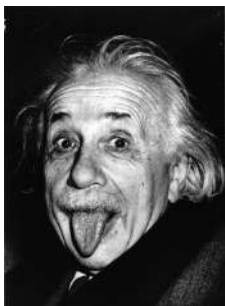
➡ ‘픽셀레이트 필터’는 이미지 필터링에 적용되는 필터의 예다. 이는 각기 다른 밝기값을 가지는 16개의 화소를 모두 동일한 밝기값으로 변환한다[→ 16개의 화소를 1개의 화소로 바꾸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이에 따라 처리 영역이 마치 저해상도처럼 뭉개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얼굴 식별이 어려워지는 거다.

0	0	100	100
50	255	50	100
50	0	0	0
50	255	255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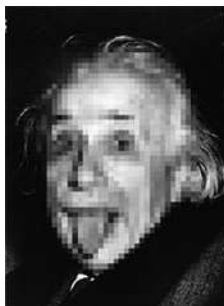
⇒ 필터 적용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95

➡ 다음은 실제 픽셀레이트 필터의 적용 전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사진이다. 여기서는 16개보다 더 많은 화소를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얼굴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했다.



⇒
필터
적용



4) 이 기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되는 것이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정 수준으로 얼굴이 복원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 픽셀레이트 필터의 장단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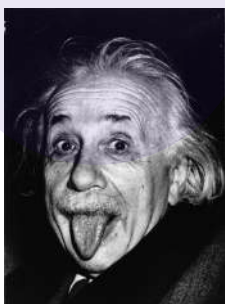
5) '이미지 암호화'는 암호화를 통해 처리 영역을 변환하여 허가된 대상에게만 얼굴을 공개하는 얼굴 익명화 기술이다.

▶ 또 다른 얼굴 익명화 기술인 '이미지 암호화'다. 이 기술의 핵심은 '허가된 대상에게만' 얼굴을 공개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허가받지 못한 대상은 영상 데이터의 얼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다.

6) 예를 들어 '픽셀 위치 기반 암호화'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 영역의 화소들을 두 화소씩 짝 지어 각각 밝기값을 서로 바꾼다. 이 규칙은 암호를 푸는 '복호화 키'에 해당하여, 이 키를 확보하면 원본 영상을 온전히 복구할 수 있다.

▶ '픽셀 위치 기반 암호화'는 이미지 암호화의 예에 해당한다. 이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소들의 자리를 바꾸므로, 복호화 키가 없다면 얼굴 부분의 화소가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섞인 영상을 보게 된다.

▶ 반면에 허가받은 대상이라서 복호화 키를 갖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암호화된 영상의 복호화가 가능하다.



⇒
암호화



⇐
복호화

▶ **백라이트** 이때 복호화 키는 가명 정보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추가 정보'에 해당한다[(가)의 문단-5)].

7) 이 기술은 원본 영상의 사용이 허가된 대상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영상을 전달할 때에 유용하지만 복호화 키가 유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 픽셀 위치 기반 암호화의 장단점이다.

(L)로단 4 얼굴 합성과 k-익명성

1) '이미지 필터링'과 '이미지 암호화'는 모두 변환된 영상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데 비해, ……

▶ 앞서 제시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필터를 적용하면 해상도가 낮아져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힘들어지고, 암호화를 거치면 아예 사람 얼굴로 인식할 수가 없어진다. 이러한 영상은 물론 유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 …… '얼굴 합성'은 유용성이 높은 편이다.

▶ 새로운 얼굴 익명화 기술로 '얼굴 합성'이 제시되고 있다. 유용성이 높다는 것은 가명 처리를 거친 영상도 마치 실제 사람의 얼굴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일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3) 이 기술은 k-익명성 기준의 충족을 목표로 한다. **k-익명성**이란 k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데이터가 뒤섞여 있어서 누구인지 식별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 'k-익명성'은 얼굴 합성이 충족해야 할 기준이다. 예컨대 9-익명성을 충족하는 얼굴 합성은 9명의 얼굴을 뒤섞어서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한다.

4) '얼굴 합성'은 주어진 영상 데이터의 처리 영역의 얼굴을 포함한 k개의 얼굴 이미지의 평균으로 새로운 얼굴 이미지를 생성하는 함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정교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도 합성된 얼굴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확률이 1/k를 넘지 않는다.

▶ 그렇겠다. k의 값이 커져 100-익명성에 이르면 개인을 식별할 확률은 1/100 이하가 되는 거다.

5) '얼굴 합성'은 원본으로 온전하게 복구가 되지 않고[→ 안전성 높음], 원본의 얼굴을 다른 얼굴로 대체한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높다. 다만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많은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한다.

▶ 여러 개의 얼굴이 섞여 있는 영상에서 한 사람의 얼굴만 온전히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얼굴 합성은 '안전성'이 높은 익명화 기술이다[문단2-2)].

▶ 얼굴 합성의 장단점이다. 안전성과 유용성이 모두 높다는 점은 일반적인 얼굴 익명화 기술과 구별되는 장점이지만[문단2-4)], 고급 기술이니만큼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건 단점이다.

이감

[10~13] 인문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과 인간의 합리적 선택

지문 평가

인간이 일상적으로 내리는 선택의 의미를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지문이다. 핵심 쟁점에 관한 상반된 견해를 나누어 이해하되, 각각의 주장이 인간의 합리적 선택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인문 - 철학 - 윤리학

합리적 선택, 가치, 전통적 공리주의자,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 파핏, 거칠게 동일함, 라츠, 이성, 의지

문단 1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의문

- 1) 흔히 **합리적 선택**이란 가능한 행위들 중 가장 큰 **가치**를 낳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 합리적 선택에 대한 통념적인 설명이다. '가장 큰 가치를 낳는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라는 상식적인 얘기다.
- 2) 행복을 유일한 궁극적 가치라 여기는 **전통적 공리주의자들**이라면 가장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행위를 선택할 것이다.
 - ➡ 가령 '전통적 공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행복'이야말로 유일한 종류의 가치인 만큼, 어느 행위가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낳을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내리면 그만이다.
- 3) 그런데 자유와 평등처럼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사물들이나 사태들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다.
 - ➡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복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가치들이 존재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 ➡ 가령 자유를 위해서는 평등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자유가 더 큰 가치인지, 평등이 더 큰 가치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가 애초에 가능하느냐는 거다.
- 4) 모차르트의 음악과 미켈란젤로의 조각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그렇고, 음악가로서의 삶과 법률가로서의 삶이 지닌 가치를 비교하는 것도 그러하다.
 - ➡ 예술이라는 같은 영역에 속한 것들이라도 그 예술적 가치를 비교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음악의 가치가 조각의 가치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아가 아예 다른 영역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것이다.
- 5) 다만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인정하면 합리적 선택조차 가능하지 않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 ➡ 문제는 여러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면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해진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왜냐하면 '합리적 선택'이란 여러 가치를 비교하여 어느 가치가 가장 큰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 6) 그래서 '의도적 행위는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철학자들'은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도적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 전제 1 : 의도적 행위는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 전제 2 :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려면 가치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
- 결론 :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인정하면 의도적 행위도 불가능하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부정한다. 둘째,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인정하되 **앞선 전제 2**를 부정하여 의도적 행위가 여전히 가능함을 입증한다[→ 합리적 행위가 여전히 가능함을 입증한다.]

문단 2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

- 1) 가치를 지닌 A와 B에 대해 그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A와 B의 가치 사이에 '보다 크다', '보다 작다', '서로 같다'는 표준적인 비교 관계들 중 그 어느 것도 성립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 '가치를 지닌 A와 B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은 두 대상 사이에 일반적인 비교 관계를 적용할 수 없어서, $A > B$, $A < B$, $A = B$ 전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 2) 물론 음악가로서의 성공적인 삶인 a와 법률가로서의 성공적인 삶인 b가 있을 때 둘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면, 둘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여기기 쉽다.
 - ➡ 우리의 통념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가치가 있을 때, $a > b$ 도 아니고 $a < b$ 도 아니라면, $a = b$ 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다. 이런 통념대로라면 1)의 상황에서 적어도 $A = B$ 는 성립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 3)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예컨대 a와 b가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a보다 음악가로서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인 c가 있다고 할 때 c는 b보다 더 큰 가치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 ① **맥락 짚기** 이전 2)의 통념을 부정하는, 즉 1)의 결론을 수용하기 위한 논증이다.
 - ➡ 음악가로서의 삶과 법률가로서의 삶을 비교할 수 있어서, 즉 가치의 비교가 가능하며 $a = b$ 가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a의 가치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c가 있고 $c > a$ 가 성립한다면, $c > b$ 역시 논리적으로 성립해야만 한다.
- 4)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c가 음악가로서 a보다 조금 더 가치 있다고 하여 c와 b를 비교할 때 c가 b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그러나 이때 $c > b$ 가 성립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두 가치는 어디까지나 다른 종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c와 a의 경우처럼 음악가로서의 삶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삶과 음악가로서의 삶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 ➡ 따라서 가치 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단 3 파핏의 입장

- 1) **파핏**과 같은 철학자들은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인정하는 한, 우리의 적지 않은 선택들이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의 선택으로서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 ➡ '파핏'은 애초에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논증함으로써

의도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려는 거다. 그 논증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 2) 파핏은 a와 b는 비교 불가능성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게 동일함’**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두 삶은 실제로는 어떤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어서 표준적인 비교 관계들 중의 하나에 놓여 있지만 그 비교가 불가피하게 거칠거나 부정확하여 겉으로는 비교 불가능성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 한마디로 이런 논리인 셈이다. “두 종류의 가치를 비교하는 건 표면상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측면에서 비교가 가능하다!”

문단 4 라츠의 입장

- 1) 이와 달리 **‘라츠’**는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의지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 파핏과 대립되는 어떤 논증을 ‘라츠’가 제시하는지에 주목해야겠다.

- 2) 라츠에 따르면 돈을 줄 테니 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는 우리에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당혹감은 우정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졌다는 판단이 아니라[→ 두 가치를 비교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정과 돈이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가치라는 판단에서 비롯된다.

▶ 라츠에 따르면 이렇듯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에 지극히 부합하는 것이다.

- 3) 즉 우정과 돈이 각각의 가치를 갖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중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함을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합리적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판단은 돈이라는 가치와 우정이라는 가치가 각각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4) 이는 두 선택지 모두 가치 있는 선택지로서 자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츠는 우정이나 돈이 가치를 갖는 합리적 이유를 찾고 평가하는 **‘이성’**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

▶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을 인정해도 이성의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해, 두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두 가치 모두 충분히 선택지로서 자격을 갖고 있음을 판단하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기 때문이다.

- 5) …… 그 이후의 선택은 다른 능력인 **‘의지’**가 행한다고 본다. 라츠에 따르면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갖는 선택지들 사이에서 우리의 의지는 단순한 소망에 따라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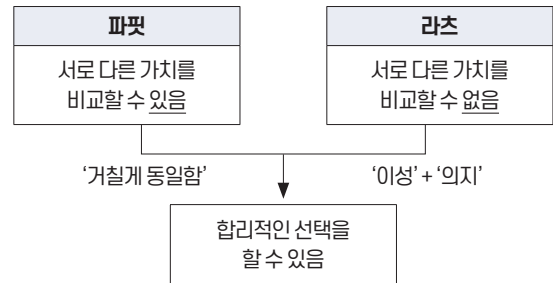
▶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합리적일 때, 실제로 선택을 내리는 것은 ‘의지’이다. 이때 의지는 그저 단순한 소망에 따라[→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합리적이니] 선택지 중 하나를 실제로 선택하게 된다.

- 6) 이때 단순한 소망을 지녔고 그에 따라 선택되었다고 하여 선택된 것의 가치 자체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 라츠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의 선택지들이 있어도 충분히 선택 가능하며, 그것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걸 주장하려는 거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가치가 선택지로서 자격이 있음을 ‘이성’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7) 라츠에 따르면 결국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은 정당화된 합리적 선택과 충돌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 이렇게 라츠는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과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 8) 한편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선택지들 각각은 이미 가치 있는 선택지로서 자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

▶ 문단(4-3), 4)를 그대로 끌어오면 된다. 비교 불가능한 선택지들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 9) ……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택의 경우 **‘이성’**이 아니라 **‘마땅히 의지’**가 관여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 문단(4-5)를 그대로 끌어오면 된다. 비교 불가능한 선택지들 중에서 이성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합리적인 이성에 비추었을 때 선택지들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판단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문단(1-)의 기준에 따른 선택이 불가능한 셈이다.].

▶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의지’가 대신 단순한 소망에 따라 선택을 내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교 불가능한 선택지들 중에서도 선택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

이감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

지문 평가

절대주의를 창안한 말레비치의 회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으니, 입체파와 형식주의 문학에 영향을 받은 말레비치의 사상이 어떻게 그림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연결해서 이해하면 무난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회화 - 절대주의 회화

말레비치, 구상 회화, 추상 미술, 절대주의, 입체파, 순수한 원점, 형식주의자, 일상 언어, 시적 언어, 구체성, 「검은 사각형」, 「흰 바탕 위의 흰 사각형」, 칸딘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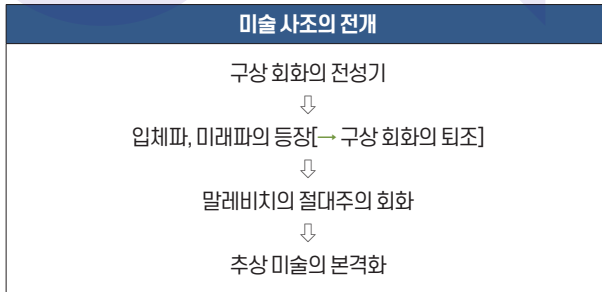
문단 1 새로운 시도로 등장한 말레비치의 작품

1) 1915년 **말레비치**는 캔버스를 가득 메운 커다란 검은 사각형이나 하얀 사각형을 작품으로 내놓아 당대의 비평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 「말레비치」의 예술 작품이 지문의 중심 소재가 되겠다.

2) 입체파와 미래파 등의 사조를 거치면서 대상을 재현하는 **구상 회화**가 퇴조하는 시기였으나 아직 **추상 미술**이 본격화되지는 않았던 만큼 그의 작품은 미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로 여겨졌던 것이다.

➡ 대상의 재현을 중요시하지 않는 일련의 사조들이 이미 등장한 시점이었음에도, 말레비치의 작품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그 무엇도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시도로 여겨졌다는 얘기가.



3) **절대주의**라 일컬어지는 말레비치의 회화는 오늘날에도 현실의 대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술을 일종의 철학적 사유의 통로로 삼은 미술이라 평가받고 있다.

➡ 현실의 대상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은 대략 이해할 수 있겠는데, 예술을 철학적 사유의 통로로 삼았다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겠다.

문단 2 입체파와 형식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은 말레비치

1) 다양한 시점(視點)에서 바라본 입체의 여러 측면을 2차원 평면에 담아 종합한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 말레비치의 화풍은 일찍부터 대상의 통일적 형태와 3차원적 공간성을 파괴하는 경향을 띠었다.

➡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입체의 여러 측면이 2차원 평면에서 종합됨에 따라 '입체파'에서는 3차원적 공간성이 파괴된다.

➡ 다음의 그림은 대표적인 '입체파' 작품 중 하나다. 무언가를 재현하고는 있으나, 그것이 파편화되어서 현실의 대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후안 그리스, 「피카소 초상」

➡ 나아가 말레비치가 입체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점도 분명히 짚고 가자.

2) 다만 입체파가 대상을 기하학적 단편으로 분해한 후에 종합하여 그 대상의 실재를 보여 주려 했다면, 말레비치는 대상의 분해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했다.

➡ 입체파는 대상을 분해하는 데에서 끝내지 않고 이를 종합하여 대상의 실재를 보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말레비치는 대상을 분해하는 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 즉 말레비치는 분해한 것을 다시 종합하여 대상의 실재를 표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 **주목** 입체파와 말레비치 모두 대상을 분해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보여 주려는 것이 다른 것이다.

입체파	말레비치
대상의 통일적 형태와 3차원적 공간성 파괴	
대상을 분해한 후에 종합 ⇒ 대상의 실재 표현	대상의 분해 그 자체에 가치 부여

3) 경험적 현실의 대상을 화폭에 옮긴 회화는 환영에 불과해서 세계의 실재를 보여 주지 못하지만 그 환영을 제거한 회화는 대상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인 **순수한 원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즉 「말레비치」는 경험적 대상의 실재를 어떻게든 보여 주려고 한 것[→ 이런 '입체파'의 관심사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노력과 반대로 환영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거다.

➡ **환영**[→ 경험적 현실의 대상을 화폭에 옮긴 것이 지워진 상태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지워진 상태임에도 '대상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 순수한 원점이 느껴진다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더 읽어 봐야겠다.

4) 이는 말레비치가 마음을 기울여 열중했던 형식주의 문학이 지향하는 바와도 유사했다. **형식주의자**들은 습관화된 언어 사용이 사물에 대한 참된 지각을 방해한다고 보고, **일상 언어**[→ 습관화된 언어]를 파괴하여 낯설게 표현한 **시적 언어**는 마치 사물을 처음 본 것처럼 대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 말레비치의 사상은 '형식주의 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형식주의자	말레비치
일상 언어 사용 : 사물에 대한 참된 지각 방해	경험적 현실의 대상을 그림 : 세계의 실재를 보여 주지 못함
일상 언어를 파괴한 시적 언어 : 사물을 처음 본 것처럼 대하게 함	현실의 대상을 제거한 그림 : 순수한 원점을 보여 줌

5) 이렇게 문학에서 일상 언어를 파괴하기도 하듯이, 말레비치 역시 화면에서 대상의 **구체성**을 지울수록 회화의 예술적 기능이 살아난다고 보았다.

- ▶ 말레비치가 대상의 분해 그 자체에 의미를 둔 이유이다. 말레비치는 화폭에서 대상의 구체성을 지워야 회화의 예술적 기능이 살아난다고 보았다.
- ▶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회화의 예술적 기능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3)에서 언급한 대상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 '순수한 원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로단 3 말레비치의 작품에 담긴 철학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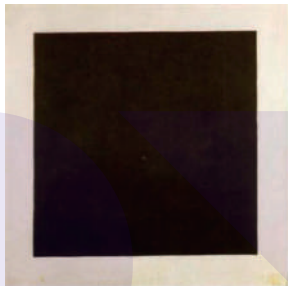
- 1) 구체적 형상을 초월한 기하학적 형태와 순수 색채가 생성의 근원, 곧 절대적인 것이라 표명하면서

▶ 말레비치의 회화가 절대주의로 불린 이유였다. '기하학적 형태, 순수 색채 = 생성의 근원 = 절대적인 것'이란. 이는 화폭에서 경험적 현실의 대상을 전부 제거한 결과이다.

❗ **주목** 여기서 '생성의 근원'이라는 표현에 특히 눈이 간다. '대상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 2) 말레비치가 내건 첫 절대주의 작품은 「**검은 사각형**」이었다. 말레비치에 따르면 검은색은 물질의 제거를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 회화 질서의 소멸을 의미한다.

▶ 검은색은 물질의 제거를, 나아가 기존 회화 질서의 소멸을 의미한다. 검은색이라는 색깔이 주는 느낌을 떠올리면 되겠다.



말레비치, 「검은 사각형」

- 3) 하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실재가 탄생하는 찰나를 품고 있는 일시적인 부재이다. 관습적으로 인식되던 세계가 모두 지워진 화면은 새로운 것이 생길 가능성의 충만함으로 꿈틀거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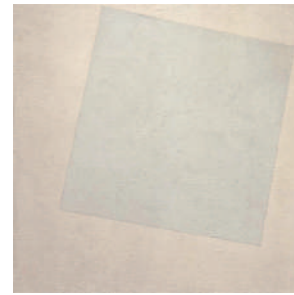
▶ 그러나 '제거와 소멸'은 결코 말레비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일시적인 부재' 즉 '새로운 것이 생길 가능성의 충만함'에 있단다.

▶ 어두운 방에 불을 켜기 직전의 상황을 상상하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칠흑으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곧 새로운 실재가 탄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거다. 따라서 말레비치의 검은색은 새로운 것이 생겨날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

- 4) 절대주의의 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흰 바탕 위의 흰 사각형**」에서는 이 같은 일시적인 부재가 흰색을 통해 드러났다. 말레비치에게 있어 흰색은 텅 빈 것[→ 소멸과 부재]인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무한함[→ 새로운 것이 생길 가능성의 충만함]을 뜻한다. 캔버스의 바탕과 그 위에 그려진 사각형의 흰색은 색조와 붓 터치가 미세하게 다를 뿐이어서 사각형이 보일 듯 말 듯 어슴푸레한데, 그는 이를 통해 있음과 없음의 공존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보여 주려 하였다.

▶ 여기서의 흰색은 텅 빈 것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나타낸다. 0과 ∞를 보여 주며, 있음과 없음의 공존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절대주의의 완성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맥락 짚기** 이 대목에서 예술을 일종의 철학적 사유의 통로로 삼았다는 말레비치의 회화에 대한 평가(문단1-3)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말레비치, 「흰 바탕 위의 흰 사각형」

로단 4 칸딘스키와 말레비치

- 1) 절대주의의 화면 구성은 추상 화가인 **칸딘스키**가 여러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들을 내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한 것과 대비된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회화는 추상일 수밖에 없다고 본 칸딘스키는, 각 조형 요소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다.

▶ 칸딘스키는 추상 화가로 말레비치 이후에 등장하였다[문단1-2]. 말레비치와 칸딘스키는 공통적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하였으나[→ 대상을 재현한 구체적 형상을 활용하지 않았으나], 칸딘스키는 말레비치와 달리 기하학적 형태 각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의 유기적 구성에 관심을 가졌다.

- 2) 예컨대 원은 정신, 청색은 천상(天上)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청색 원이나 노란 삼각형 등이 서로 조응하도록 했는데, 이는 단순한 구성미를 넘어 내면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 또 이러한 유기적 구성의 목적은 '구체적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데에 있었다.

- 3) **말레비치**도 무한한 시공간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색채와 형태를 한 화면에 구성하곤 했는데, 말레비치의 경우 일시적인 부재의 꿈틀거림을 보여 주기 위해 유기적인 구성미보다는 무게감이나 속도감, 운동 방향 등을 중시하였다.

▶ 말레비치 역시 색채와 형태를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칸딘스키와 달리 유기적 구성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단다. 이는 애초에 '내면세계'의 표현이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겠다. 대신에 '대상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 무게감, 속도감 등에 주목했다.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비교해 보자.



칸딘스키, 「섬세한 내면」



말레비치, 「절대주의의 구성」

[24~26] 고전시가

(나) 「북천가」 김진형

작품 평가

김진형(1801~1865)은 홍문관 교리(정5품)로 있을 때인 1853년(철종 4년), 이조 판서(정2품) 서기순의 잘못을 따지는 상소를 올렸다가 반대파에게 물려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되었다. 이 작품은 그때 지은 유배 가사로, 유배를 가게 된 이유와 유배지까지의 여정, 유배지의 체험과 견문 등을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유배 가사들이 대개 침울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과는 달리, 가볍고 흔쾌하게 유배 길을 떠나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유배지에서의 풍류와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배의 이유가 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겠다.

세상 사람들아 이내 거동 구경하소

➡ 이 작품의 첫 구절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자신의 애기를 시작하고 있다.

과거(科擧)를 하거들랑 청춘에 아니 하고

➡ 공부도 젊을 때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오십(五十)에 등과(登科)하여 백수 홍진(白首紅塵) 무슨 일고

→ 나이 신에 급제하여 늙어서야 홍진에서 [분주하니] 이 무슨 일인가

➡ 작가는 50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비로소 관직에 나간다. 다 늙은 나이에 벼슬살이를 하며 세상에서 동부서주하는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도 안타깝다 싶었던 것이다.

공명(功名)이 늦으나마 행세(行世, 처세하여 행동함)나 약빠르지(= 약아서 눈치나 행동 따위가 재빠르지)

→ 공명 이루기가 늦었으면 처신이나 약빠르지

➡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간 만큼 더욱 민첩하고 영리하게 처세했어야 했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다.

무단히(= 아무 사유가 없이) 내달아서 소인(小人)의 적이 되어

➡ 앞뒤 가리지 않고, 겁도 없이 덤벼들다가 소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뜻이다.

부월(斧鉞, 형구로 쓰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을 무릅쓰고 천문(天門, 대궐의 문을 높여 이르는 말)에 상소하니

→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에게 상소하니

➡ 53세에 홍문관 교리로 있던 작가가 이조 판서(정2품)인 서기순의 잘못을 따지는 상소를 올린 사건을 가리킨다.

이전(以前)으로 보게 되면 빛나고 옳건마는

요요(擾擾, 뒤숭숭하고 어수선했)한 이 세상에 남다른 노릇이라

➡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빛나고 올바른 행동이건만, 혼란스러운 지금 세상에서는 유난스러운 행동으로 취급된다는 말이다. 화자는 자신의 상소가 옳은 일이라고 믿지만, 세상이 뒤틀리고 혼란스러워진 탓에 유난스럽고 잘못된 일로 보이게 된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상소 한 장 올라가서 온 조정(朝廷)이 울컥한다(= 격한 감정이 갑자기 일어나다)

➡ '상소 한 장'에 조정 전체가 격한 반응을 보인 상황을 '울컥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어와 황송할사 천위(天威, 제왕의 위엄)[→ 여기서는 왕을 가리킨다.]가 진노하사

삭탈관직(= 죄를 지은 자의 벼슬을 빼앗고 벼슬아치의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우던 일)하시면서 엄지(嚴旨, 임금의 엄중한 명령)하고 꾸중하니

운수 박한 이 신명(身命, 몸과 목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고향으로 돌아갈 제

→ 운수 나쁜 이내 몸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춘풍(春風)에 배를 타고 강호(江湖)로 향하다가

남 수찬(南修撰) 상소에 명천(明川, 북쪽 변방인 함경도에 있는 고을의 이름)

유배 놀랍도다

➡ 관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유배까지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 수찬'은 작가와 대립했던 인물로, '수찬'은 홍문관에 속한 벼슬 이름이다.

(중략)

추풍(秋風)에 놀라 깨니 변방 산(山)에 서리 온다

→ 가을바람에 놀라서 정신을 차려 보니 변방 지역의 산에 가을 서리가 오고 있다.

➡ 유배지에서 가을을 맞았다는 말이다.

남천(南天,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며 쓸쓸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북방(北方)을 굽어보니 오랑캐 지경(地境)이라

➡ 유배지인 명천이 여진족의 땅과 가까웠던 것이다.

개가죽 상하의(上下衣)는 상놈들 다 입었고

➡ 명천에 살고 있는 평민들의 옷차림을 말하고 있다. 위아래로 개가죽을 걸친 모습이 아만적인 느낌을 주었던지, 화자는 이들이 오랑캐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은 듯하다.

조밥 피밥 기장밥은 주민의 조석(朝夕, 아침밥과 저녁밥)이라

본관(本官, 유배지의 수령)의 성덕(盛德, 크고 훌륭한 덕)이요 주인의 정성으로

실 같은 이내 목숨 한 달 반을 지냈더니

➡ '주인'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머물렀던 거처의 주인을 가리킨다. '본관'과 '주인'의 덕택으로 유배지에서 한동안 잘 지낼 수 있었다는 뜻이다.

천만의 의가신(家信, 자기 집에서 온 편지나 소식) 오며 명복이 왔단 말가

→ 천만 뜻밖에 집에서 편지 오며 명복이 왔단 말인가

➡ '명복'은 화자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이다.

놀랍고 반가우니 미친놈이 되었구나

➡ 오랜만에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미친놈'처럼 마구 흥분했다는 것이다.

절새(絕塞, 아주 먼, 국경에 가까운 땅)에 있던 사람 향산(鄕山, 고향의 산천)

에 돌아온 듯

➡ 자신의 몸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에 돌아온 듯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편지를 받은 기쁨이 어찌나 큰지, 화자는 행복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나도 나도 이럴망정 고향이 있었던가

➡ 나도 지금은 만리타향 유배지에 와 있는 신세일망정 고향이 있었구나, 하고 감격했음을 알 수 있다.

서봉(書封, 편지 봉투)을 떼어 보니 정 담은 서찰 몇 장이고

→ 봉투를 떼어 보니 정겨운 편지 몇 장인가

폭폭이 친척이요 먼먼이 가향(家鄉)이라

➡ 편지마다 친척들과 고향 소식이 가득 적혀 있다는 뜻이다.

[31~34] 현대시

(가) 「함남 도안」 백석

작품 평가

백석은 기행시를 여러 편 남겼다. 그중 이 작품은, 함경남도 개마고원 지대에 있는 신흥선의 종점 부근인 도안역을 방문한 뒤 남긴 것이다. 정경을 그린 시라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시에 그려진 맑고 아름다운 정경과 시인이 이런 정경을 그리던 창작 당시의 힘겨운 시대 상황을 연결해 보면 시에 표현된 것 너머의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제 1연

고원선(高原線) 종점(終點)인 이 작은 정거장(停車場)엔
그렇게도 우쭐대며 달가불시며(= 까불며) 뛰어오던 뽕뽕차(= 무계가
비교적 가벼운 철도 차량)가

가이없이 쓸쓸하니 우두머니 서 있다

- ▶ 역의 풍경이 그려져 있다. 종점이라 열차는 서 있고, 정거장은 작다. 일반적으로 일제 강점기의 기차는 식민지 근대의 표상처럼 여겨지곤 하는데, 이 시는 작고 외딴 기차역에 '우두머니 서 있는' 기차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호들갑을 떨듯 달려오던 기차의 움직임 자체도 토속어로 맛깔나게 표현하고 있다.
- ▶ 기차는 역동적 이미지를 담고 있거나, 어디론가 떠나고픈 심리 등을 상징하는 소재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기차가 '종점'에 멈춰 서 있는 상태로 그려져 있다. 기차가 서 있는 '작은 정거장'이 '고원선 종점'이라는 데서, 식민지 근대의 중심부인 경성(= 서울)과는 거리가 먼 곳의 풍경으로 기차역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제 2연

햇빛이 초롱불같이 희맑은데

해정한(= 깨끗하고 맑은) 모래부리 플랫폼에선

모두들 찹쌀 끓는 구수한 귀이리 차(茶)를 마신다

- ▶ 햇빛이 맑고, 모래가 깨끗하다. 모래밭 위에 세워진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구수한 귀리 차를 마시는 무척 평화로운 풍경이다. 자칫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햇빛마저 약하고 작은 '초롱불'에 빔대어 표현함으로써, 정경의 평화로움을 한층 더했다. 귀리는 함경남도 고원 지대의 흔한 먹거리인데 추운 곳이라 함께 모여 '찹쌀 끓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도 소박하고 정겹다.

제 3연

칠성(七星)고기라는 고기의 찹병찹병 뛰노는 소리가

쫄쫄하니(=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는 호수까지는

들죽(= 들쭉나무의 열매. 모양과 맛이 포도와 비슷함)이 한불(= 한꺼번에. 일정
한 범위의 공간에 사람이나 물건 따위가 쭉 널려 있는 모양) 새까마니 익어 간 망
연한 별판을 지나가야 한다

- ▶ 제2연까지 제시된 기차 종점에서 칠성고기가 뛰노는 호수로 가려면 들쭉 열매가 익어 가는 넓디넓은 별판을 지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들쭉이 익은 것으로 보아 지금은 가을이다.
- ▶ 제3연은 역이 아닌 다른 공간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호수에서 물고기가 뛰어노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곳, 새까맣게 무르익은 들쭉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넓디넓은 별판이 펼쳐진 곳, 그곳은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지배 체제의 힘겨운 현실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 제2연의

평화로운 풍경과 이를 지나서 펼쳐지는 제3연의 생명력 가득한 공간을 환기
하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시절인 것이다.

이 감